

TV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의 여성주의적 서사*

김미라**

<차례>

1. 들어가는 말
2. 여성주의와 미디어 연구: '노인여성'의 재현과 담론
3. <디어 마이 프렌즈>의 서사 분석결과
 - 3.1. 계열체 분석: 등장인물의 특성과 관계
 - 3.1.1. '타자'에서 '주체'가 된 노인여성들
 - 3.1.2. 끈끈한 우정과 자매애, 친구세대간의 여성연대
 - 3.1.3. 탈권위적인 남성 인물들과, 여성중심의 관계
 - 3.2. 통합체 분석: 불균형을 해소하는 여성 연대의 힘
4. 맺음말: 드라마 <디마프>를 통해본 여성주의적 글쓰기

<국문초록>

고령화 사회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노인여성은 연령과 성별에 의해 차별을 받는 이중적 소수자로서, TV드라마 등에서도 젊은 주인공의 어머니나 할머니 등의 역할에 머무르며 주변부로 밀려난 채 배제돼 왔다. 또한 미디어는 이들을 단지 늙고 쇠약한 '돌봄'과 '시혜'의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가족 이기주의에 함몰돼 갈등을 유발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주책맞은 노인으로 묘사하는 등 부정적이고 정형화된 이미지를 재현해 왔다. 본 연구는 미디어의 이러한 재현방식이 노인여성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담론을 양산하고 세대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노인여성을 전면에 내세워 큰 호응을 받았던 TV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를 대상으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서사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디마프>는 초등학교 동문 관계인 이들 노인여성들이 '노인'이 아닌, 삶의 지혜와 경륜을 갖춘 '어른'으로 여전히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각자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며 주변을 돌보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기존의 재현관습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노인여성의 이미지와 노인담론을 생산하였다. 뿐만 아니라 혈연관계보다도 끈끈한 여성들 간의 '우정'과 '자매애'를 통해 친구와 선후배간에, 모녀간에, 그리고 친구세대간에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갈등을 풀어나가는 서사는 '여성연대'와 여성주의적 글쓰기의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1. 들어가는 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3.2%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6년에는 그 비율이 20%로 국민 5명중 1명이 노인인 이른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소비둔화와 의료비용, 부양문제 등의 사회적 부담이 고령화의 그늘로 논의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나이에 비해 젊고,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경제적 능력을 갖춘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를 일컫는 신노년담론도 부상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급격한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년 세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내는 원천은 여전히 미디어이다.¹⁾ 정진웅(2003)은 “사람들은 더 이상 노년의 삶에 걸맞은, 혹은 노년의 생애 과정에 고유하게 추구될 수 있는 삶의 가치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즉, 공적 담론의 장에서 노년은 의미가 증발해 버린 일종의 ‘문화적 황무지’가 되어간다”고 지적하며, 노년 담론의 비어있는 공간을 결국은 대중매체가 창출해 내는 이미지들이 채워간다고 보았다.²⁾ 특히 TV가 도시의 소외된 노인이나 자식들을 떠나보내고 농촌에 남은 주변화된 노인들, 사회적 성취에서 소외된 궁핍한 노인 등 부정적 노년의 모습을 과도하게 그려냄으로써 현실에서도 점점 더 연민과 동정, 비하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실

1) 홍명신, 『에이징 커뮤니케이션-고령사회를 위한 노인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7면.
 2) 정진웅, 「노년의 꿈, 타자화된 노년과 공상적 노년담론을 넘어서」, 『당대비평』, 제22호, 생각의 나무, 2003, 319~329면.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제로 대다수 연구들이 뉴스나 드라마, 광고 등 미디어 텍스트 내에서 노인은 노쇠하거나 질병 등의 신체적 취약성을 가진 의존적 존재로 자리매김 되고, 사회적 보호와 물질적·정신적 배려가 필요한 존재, 무지하고 자아 정체성이 미약한 과거 지향적 존재 등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왔음을 지적한다.³⁾

이처럼 ‘연령주의’에 기반한 미디어의 노년 세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재현과, ‘돌봄’과 ‘시혜’의 대상으로서만 노년을 규정하는 담론 생산은 준비되지 않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미디어의 노년 세대 재현 가운데서도 특히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노인여성’의 재현문제에 천착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인구 구성을 살펴볼 때 50대까지는 남성 인구가 많으나, 60대 이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성인구가 많은 만큼 노인문제는 곧 ‘노인여성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찍이 벨(Bell, 1970)은 노화를 묘사하는데 있어 남녀 간의 이중적 잣대가 존재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보다는 남성들의 노화를 심리적으로, 성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⁴⁾ 그의 이러한 주장은 실제로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에서 뒷받침되고 있는데, 노인 여성은 우스꽝스럽고 나약하며 의존적인 존재, 수동적이고 부수적이며 돌봄이 필요한 시혜의 대상, 가족관계에서만 존재하는 주변화된 인물로 재현되고 있으며 ‘타자로서의 여성, 객체로서의 여성’이 지배적인 이미지로 나타났다⁵⁾ 이처럼 노인여성에 대한 부정적이고 획일화

된 재현은 특정 가치와 담론을 생산하며 일종의 사회화 도구로서 기능하는 드라마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나이든 여성은 주인공의 어머니나 시어머니, 계모, 할머니 등의 주변적 역할을 수행하며, 인격적으로 성숙하거나 존경을 받는 인물로 묘사되기 보다는 일상적 갈등을 유발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특히 할머니의 연령대로 진입한 노인여성은 주책스럽고 단순함이 중요한 특성으로 부각된다.⁶⁾ 이와 관련해 미디어 연구자들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노인 남성과 달리 노인여성은 연령과 성별에 의해 차별받는 이중적 소수성을 가진 사회적 약자로 배제되고 탈권력화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해 5월부터 tvN에서 방송됐던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이하 디마프)는 노인여성에 대한 전혀 다른 방식의 재현과 접근을 통해 다양한 세대에게 공감을 주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⁷⁾ 방송 전부터 실제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는 쟁쟁한 연기자들의 출연으로 ‘시니어 어벤저스’라 불리며 기대를 모았던 <디마프>는 홈페이지의 기획 의도에서 밝히고 있듯이 늙고 무기력하며 주책스럽고 나이를 권력으로 생각하는 속칭 꼰대라 불리는 ‘노인’이 아니라, 여전히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며 주변의 사람들을 포용하고 배려하는 ‘어른’의 모습을 그려냈다. 특히 극의 중심을 이루는 초등학교 동문인 노인여성들이 끈끈한 우정으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 가는 과정을 통해 최근 포스트페미니즘이 주목하는 ‘여성연대’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연령과 성차별에 따른 이중적 소수자로 미디어에서 단지 주변인으로 그려지며 배제됐던 노인여성에 대한 새로운 재현의 가능성을 보여준 <디마프>를 대상으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서사의

3) 지영서·김영찬, 「노인대상 프로그램 제작진의 인식과 제작 환경에 관한 현장 연구: 공영방송 KBS를 시작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제15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0, 245면.

4) 양정혜, 「TV광고가 재현하는 고령화 시대의 노인」, 『커뮤니케이션이론』, 제7권 1호, 한국언론학회, 2011, 80면에서 재인용.

5) 윤현선, 「텔레비전 광고에 재현된 노년 여성의 문화적 표상」, 『지금, 여기, 여성적 삶과 문화』,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3, 208~234면.

6) 홍지아, 「TV드라마를 통해 재현된 여성의 몸 담론」, 『한국언론정보학회』, 통권 제49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10, 138면.

7)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극본: 노희경, 연출: 홍종찬)>는 총 16부작으로 2016.5.13 ~ 7.2까지 방송됐으며, 시청률 8.1%(닐슨 코리아 제공)를 기록한 것은 물론 지난 4월 20일 ‘제21회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을 수상하는 등 호평을 받았다.

특성을 분석하고, 텍스트가 지향하는 가치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TV드라마의 재현방식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채트먼(Chatman, 1978/ 1990)⁸⁾의 서사분석 틀⁹⁾을 원용하여 이야기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물의 특성과 인물간의 관계 등 계열체 분석을 통해 가부장적 질서에 순응했던 기존 드라마와 달리 노인여성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재현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채트먼은 서사분석에 있어 이러한 계열체 분석과 함께 플롯의 전개와 인과성을 살펴볼 수 있는 통합체 분석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전체 서사를 이끌어가는 갈등구조와 권력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토도로프(Todorov, 1977)¹⁰⁾의 시퀀스 분석틀을 활용하여 통합체 분석을 시행하였다. 토도로프는 일반적으로 서사는 균형 상태에서 어떤 힘에 의해 갈등을 겪는 불균형상태를 거쳐 다시 평형상태로 복원하는 구조를 갖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석은 불균형 상태의 원인과 새로운 균형 상태를 가져오는 힘을 파악함으로써 텍스트의 근간을 이루는 이데올로기와 텍스트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를 발견해 내는데 유효하다.¹¹⁾

이 연구는 그동안 여성주의적 시각에서의 미디어 연구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담론 안에서 억압받는 여성들을 단일한 집단으로 상정함으로써 그 안에서의 인종, 연령, 문화 등에 따른 각각 다른 차별과 억압에 대해서는 제대로 천착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이중적 소수자로서의 ‘노인 여성’에 대한 미디어 재현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서사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사회문화적 함의를 살펴봄으로써 고령

화 사회에서의 새로운 미디어의 역할과 노인담론, 여성주의적 글쓰기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여성주의와 미디어 연구: ‘노인여성’의 재현과 담론

페미니즘 연구자들은 한 사회의 지배적 가치로 여겨지는 성 정체성이 나 성별 구분에 따른 역할은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본질(essence)이라기보다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따른 사회적 구성물로 이해한다.¹²⁾ 따라서 이들은 주체를 규정하는 의미화 실천과 상징체계를 포함하는 문화적 과정으로써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대중매체, 즉 미디어의 재현체계¹³⁾에 관심을 가져 왔으며, 이것이 곧 페미니즘과 미디어 연구의 접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여성주의적 시각은 여성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드라마 텍스트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젠더간 권력관계 및 변화된 지배질서를 읽어낼 수 있는 유용한 해석틀을 제공하는데, 최근의 포스트페미니즘의 관점은 서로 다른 여성간의 ‘차이’에 주목하면서 대중매체 속에 중첩된 젠더담론들의 양상과 다변화된 여성 이미지들을 읽어내는데 보다 유용하다.¹⁴⁾

그렇다면 그동안 미디어는 과연 ‘노인여성’을 어떻게 위치지우며 재현해 왔는가? 변재란(2012)은 대중매체에서 노인여성은 개인, 여성, 인간으로 등장하지 않으며, 출세욕, 자아실현, 성적 욕망에 충실한 노인여성 캐릭터는 없다고 지적한다.¹⁵⁾ 이는 ‘노인여성’이라는 호칭대신 ‘노인’과 ‘할

8) Chatman, S., 김경수 역, 『영화와 소설의 서사 구조: 이야기와 담화』, 민음사, 1990.
9) 페미니즘 관점의 TV드라마 재현방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드라마가 연속적인 이야기(story)와 담화(discourse)로 구성된다는 특징 때문에 채트먼의 서사분석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영화나 광고 텍스트의 경우에는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 이론, 또는 기호학을 적용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10) Todorov, T., *The Poetics of prose* (Howard, R., Tran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7.
11) 김환희·이소윤·김훈순, 「TV드라마와 젠더담론의 균열과 포섭: 이혼녀와 미혼모의 재현」, 『미디어, 젠더 & 문화』, 제30권 3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5, 18면.

12) M. Vavrus, "Domesticating patriarchy: Hegemonic masculinity and television's 'Mr. Mom'", *Critical Studies in Media Communication*, 19(3), 2002, pp.352~375.

13) Woodward, K.(Ed.), *Identity and Difference*, London: Sage, 1997, p.4.

14) 김환희·이소윤·김훈순, 앞의 글, 2015, 7면.

15) 변재란, 「여성, 할머니 그리고 아이들의 재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4호, 한국콘텐츠학회, 2012, 110면.

머니'라는 호칭을 쓰는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TV드라마와 뉴스에 등장하는 노인여성은 하나의 개체로 독립된 위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성성이 탈각된 노인이나 할머니의 전형성에 흡수되어 개인의 욕망과 정서보다는 가족제도나 사회적 요구에 더 충실한 어머니, 며느리로 그려져 왔다는 것이다.¹⁶⁾

이처럼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노인여성'에 대한 미디어 연구의 한 갈래는 미디어가 노인여성의 정체성과 가족 내 성역할, 이미지를 어떻게 재현하고 재생산해 내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박주연과 김숙(2013)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지상파방송 3사에서 방영된 드라마 중 노인 캐릭터가 등장하는 211편 속 노인 캐릭터 329명에 대한 양적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여성노인보다는 남성노인이 가족 내에서 '지배적인 위치'로 묘사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여성노인은 상대적으로 '하위적 위치'로 묘사되는 경우가 더 많아 여전히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¹⁷⁾ 그동안 주변인으로만 머물던 노년세대를 주인공으로 노년의 삶과 애환, 사랑 등을 본격적으로 조명해 호평을 받았던 강풀 원작의 <그대를 사랑합니다>에서조차 이러한 재현 관습이 고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의 주인공은 전통적 가족주의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한 희생적 인물로 재현되며, 남성 주인공은 가부장적 아버지이자 보호자로, 여성 노인은 희생적이며 순종적인 여성으로 가부장적 성역할에 충실하게 재현된 것이다.¹⁸⁾

한편 홍지아(2010)는 2000년부터 2007년에 걸쳐 방송된 TV드라마 27편에

16) 강진숙, 「노인여성의 미디어 재현과 차별에 대한 인식 연구: 20대 대학생들과의 초점 집단인터뷰(FGI)를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제24권 1호, KBS 방송문화연구소, 2012, 115면.

17) 박주연·김숙,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노인의 가족 내 역할과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제57권 2호, 한국언론학회, 2013, 185~206.

18) 이경숙, 「<그대를 사랑합니다>의 서사적 재매개와 노년의 재현 관습」, 『드라마연구』, 제38호, 한국드라마학회, 2012, 152~156면.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에 대한 연령, 외형적 특징, 주요갈등구조에서 수행하는 역할 등을 분석하고, 4,50대 여성은 주인공의 어머니로, 그 이상의 여성은 주인공의 할머니로, 대다수가 주변적인 역할로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드라마 속에서 이들 나이든 여성들은 성숙한 어른의 모습보다는 자녀의 연애사에 개입하거나 자녀세대에 갈등을 유발하고, 가족이기주의에 젖어 일상적 갈등을 일으키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졌다고 한다. 특히 할머니 또래의 60대 여성노인 1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9명이 주책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중성적 모습으로 재현되었다고 지적했다.¹⁹⁾

이와 같은 노인여성에 대한 차별적, 부정적 재현은 비단 드라마뿐만 아니라 광고에서도 마찬가지다. TV 광고가 재현하는 고령화 시대의 노인 이미지에 대해 분석한 양정혜(2011)는 광고속 성비나 경제적 지위, 역할 비중에 있어 노인여성들은 노인남성보다 존재감이 낮고 주변적 존재로 그려지며, 노인남성들이 인생을 즐기거나 직장 등에서 리더의 위치로 묘사되는 것과 달리 노인여성들은 독거노인이나 돌봄의 대상으로 그려져 명백한 젠더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²⁰⁾ 윤현선(2013) 역시 TV 광고에 재현된 노인여성의 재현방식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정형화, 희화화, 주변화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정형화'는 광고 속 노인여성은 가족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전통적인 할머니상으로, 병약하고 의존적이며 동시에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정형화된 이미지가 지배적이라는 의미이다. '희화화'는 그야말로 노인여성이 주책맞고 우스꽝스럽게 그려지고 있는 것을 말하며, '주변화'는 사회의 중심부에서 동떨어진 존재로 재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광고 텍스트 내에서도 가부장제의 상징적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²¹⁾

물론 노인여성에 대한 재현에 있어 이러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균

19) 홍지아, 앞의 글, 2010, 122면.

20) 양정혜, 앞의 글, 2011, 100~101면.

21) 윤현선, 앞의 글, 2013, 208~234면.

열이 보이는 변화들도 시도되고 있다는 일부 연구들도 있다. 이동옥(2010)은 2009년부터 2010년에 걸쳐 방송된 지상파방송의 TV드라마 10편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보석비빔밥>(MBC, 2009) 등의 드라마에서는 노인여성이 가족 내의 인간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자아발견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갖는 쪽으로 변화된 양상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전의 노인여성에 대한 재현관습과 달리 노인여성이 수동적이고 주변화된 인물이 아니라, 노인남성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집안의 어른으로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사회적 지위와 부를 가진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고 보았다.²²⁾ 그러나 강진숙(2012)은 <찬란한 유산>(SBS, 2009), <내 이름은 김삼순>(MBC, 2005) 등에 등장하는 노인여성들 역시 재력이나 권세를 갖춘 합리적인 기업 경영자나 호텔 소유주로 등장, 사회적 지위 등에서는 다소 변화가 있지만 손자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부장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²³⁾ 이는 드라마에 등장하는 일부 노인여성들이 돌봄의 대상이나 사회적 약자로 그려지지 않고 노인남성들처럼 부와 권력을 가진 인물로 등장하지만 결국은 가부장제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여성’에 대한 미디어의 재현과 관련된 여성주의 시각의 또 다른 연구 갈래는 여성의 외모와 몸, 성 담론에 관한 것이다. 미디어는 가부장적 권력이 요구하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몸을 끊임없이 표준으로 제시하면서 그 기준에 의해 노인여성은 여성성이 탈각된 무성적 존재로 그려지며 성 담론에서 배제돼 왔다.²⁴⁾ TV드라마를 통해 재현된 여성의 몸에 관한 담론을 분석한 홍지아는 보다 구체적으로 늙은 여성들 개개인의 개성에 따른 다양한 모습과 성취, 고민에 대해 주목하기 보다는 늙은 외모

가 강조된 사회적 타자로 획일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정한 연령대 이상의 여성이 ‘아줌마’로 집단화되어 사회적 희화화의 대상이 되듯이 노인여성 또한 외형적 늙음 때문에 젊은 여성이나 또래의 남성보다 무력하고 열등한 존재로 위치지어진다는 것이다.²⁵⁾ 실제로 분석대상 드라마에 등장하는 152명의 여성 가운데 비여성적, 중성적 외모를 지닌 인물은 11명이고 이들 가운데 9명이 노인여성이었는 데, 사회가 규정하는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상실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무지, 뻔뻔함, 사투리, 유난한 식탐과 상황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미디어에서 남성은 나이를 먹어도 인생을 즐기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로 재현되는 반면 같은 연령대의 여성은 무능력하고 추한 존재로 그려져 육체적 늙음이 여성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정된다.²⁶⁾

이와 같은 육체적 노화에 대한 미디어의 젠더 차별적인 재현은 노인성 담론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신문, 잡지,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의 노인 성 담론을 분석한 이동옥(2010)은 이들 미디어가 여성의 욕망과 경험은 반영하지 않은 채 생물학적 관점에서 남성의 성기능과 건강에만 관심을 갖고, 남성의 성적 욕망을 노년기까지 연장함으로써 성폭력이나 성매매를 정당화하며 남성 중심적인 성 담론을 강화한다고 지적했다.²⁷⁾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노인여성’에 대한 여성주의 시각에서의 미디어 연구는 가부장제의 질서 아래서 미디어가 어떻게 노인여성을 배제하고, 그들의 성역할과 이미지를 왜곡해서 재현하는지에 주목해 왔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주체적인 노인 여성의 삶과 여성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준 TV드라마 <디마프>의 서사분석을 통

22) 이동옥,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노인여성의 역할분석과 힘 기르기」, 『젠더연구』, 제14호,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2010, 93~107면.

23) 강진숙, 앞의 글, 2012, 130면

24) Thone, R., *Women and Aging: Celebrating ourselves*, New York: Harrington Park Press, 1992.

25) 홍지아, 앞의 글, 2010, 127면.

26) Gerbner, G., Signorielli, N., & Morgan, M., “Aging with television: Images on television drama and conceptions of social reality”, *Journal of Communication*, Winter, 1990, 37~47.

27) 이동옥, 「한국의 노인 성담론에 관한 여성주의적 고찰」, 『한국여성학』, 제26권 2호, 한국여성학회, 2010, 41~69면.

해 고령화시대 노인여성에 대한 여성주의적 글쓰기의 가능성을 고찰하고 그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3. <디어 마이 프렌즈>의 서사분석 결과

총 16부로 구성된 드라마 <디마프>는 주요 출연진들의 나이가 실제 평균 70세를 넘어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드라마를 이끌어 가는 서사의 골간 역시 한 지역 초등학교의 동문인 친구 또는 선후배로 얽혀 있는 6, 70대 노인들의 삶과 애환, 일상을 다루고 있다. 드라마는 이들의 일원인 장난희(63세, 고두심분)의 딸이자 번역 작가인 박완(37세, 미혼, 고현정분)이 엄마의 동문회에 따라 갔다가 엄마의 상처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어느 젊은이들처럼 평소 피하고 싶었던 ‘꼰대’들의 관찰자가 되어 화자로서 이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무엇보다 이 드라마는 그동안 젊은 주인공의 엄마, 할머니 역 등 주변적인 역할에 머물렀던 노인 여성들이 극의 전면에 등장하여, 늙고 무기력한 ‘돌봄’의 대상이나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고로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유발하는 ‘노인’이 아니라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치열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며 연륜과 지혜로 주변을 보듬는 ‘어른’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드라마의 주요 등장인물과 그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1]과 같다.



< 그림 1 > <디어 마이 프렌즈>의 인물관계도²⁸⁾

3.1. 계열체 분석: 등장인물의 특성과 관계

먼저 본 연구에서는 <디마프>가 노인여성의 역할과 이미지를 어떤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채트먼의 이야기(story) 분석틀을

28) 출처: <디어 마이 프렌즈> 공식홈페이지의 인물 관계도.
<http://program.tving.com/tvn/dearmyfriends/13/Contents/Html>

원용하여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특성과 관계 등에 대한 계열체 분석을 실시하였다.

3.1.1. ‘타자’에서 ‘주체’가 된 노인여성들

드라마 <디마프>는 그동안 ‘어머니’ 혹은 ‘할머니’라는 호칭 뒤에서 주변인으로만 머물렀던 6, 70대의 초등학교 동문인 여성 노인들을 극의 전면에 호명하여 이들이 여성으로서 겪었던 삶의 애환과 상처, 노년기에 누구나 맞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한다. 60대의 난희와 영원, 충남, 이들의 선배이자 70대의 절친한 친구관계인 희자와 정아, 그리고 난희의 친정어머니인 80대의 쌍분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서도 기존의 노쇠하고 의존적인 노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들은 각자가 여전히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며, 노쇠한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되레 주변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먼저 극의 전반을 이끌어 가는 희자(72세, 김혜자 분)는 결혼 초기 젓먹이 큰이들을 병으로 잃은 것 외에는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뜨면서 독거노인이 된다. 칠십이 넘은 나이에 도수 좁은 소녀처럼 여리고 따뜻한 감성을 가진 희자는 남편과 사별 후 무력감에 자살시도를 하려다 경찰서까지 가는 해프닝을 벌이지만, 이내 혼자서도 살 수 있다며 마음을 다잡고 성당에 나가 자원봉사를 하는 등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던 중 희자는 치매 진단을 받게 되는데, 자식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엄마가 걱정돼 같이 살겠다는 아들 민호를 설득해 돌려보낸다.

희자 엄마, 치료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 널 가.

민호 나 여기서 살라고

희자 (고개 돌려 보며, 화난) 싫어, 니가 왜 나랑 살어. 넌 결혼

도 했는데.. 마누라랑 살아야지... 전에 의사가 그랬어. 망상 장애래. 치매 아니고, 약 먹음 괜찮어.

민호 (달래는, 애써 편하게) 맞아. 그러니까 엄마, 약 잘 먹자.

희자 알어. 약 안 먹음 치매 걸려. 내가 약을 좀 걸러 먹어 그래. 그러니까 난 병원 가고, 넌 집에 가고, 우린 지금처럼 따로 살어.

이후 치매증세가 심해져 실종됐다 집으로 돌아온 희자는 가족들과 주변사람들의 관심과 돌봄을 부담스러워하며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치매요양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한다. 후배인 충남에게 치매요양원에 같이 가보자던 희자는 요양원을 둘러본 후 집에 가자는 충남에게 가지 않겠다며 끝내 혼자 남기로 한다.

희자 민호, 하늘이(며느리) 다 고생이야, 나랑 있음. 애기랑 지들끼리만 잘 살게 냅두고 싶어. 충남아, 언니 여기 냅둬... 평생 남 피해 안주고 지금껏 살았는데, 언니 도도하게 여기 있다가...

일반적으로 기존의 드라마가 치매노인을 추하고 의존적인 ‘돌봄’의 대상으로 그리며, 그로 인한 가족들의 갈등과 불행을 극단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노년의 현실을 피하고 싶은 것으로 재현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디마프>는 치매에 걸려서도 주변 사람들이나 자식에게조차 부담을 주지 않고 가능한 혼자 해결하고, 끝까지 자존감을 지키고자 하는 희자의 모습을 통해 그들을 가족과 사회의 부담으로 배제하지 않고 생로병사의 과정에서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로 재현하고 있다.

희자와 초등학교 때부터 평생 절친으로 지내온 정아(72세, 나문희 분). 그녀는 젊은 시절 가난과 모진 시집살이, 유산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세

딸의 엄마로 충실하게 살아왔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남편 석균은 매사에 그녀를 무시하고 가장의 권위를 중시하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인물이지만 정아는 신혼 때 남편이 약속했던 세계여행에 대한 꿈을 품고 무던히 참고 견딘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에 있던 친정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입양해 키운 큰딸 순영이 오랫동안 교수인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집을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아는, 큰딸의 이혼을 적극 지지하며 남편 몰래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팔아 딸의 미국행을 돕기로 한다. 자신은 가부장제의 굴레를 쓰고 살았지만, 참고 살라며 무조건적으로 순종과 희생 등 가부장적 가치를 강요하는 어머니들과 달리 그 가부장제의 폭력에 정면으로 맞서서 딸 순영을 지켜내고 응원하는 것이다. 집을 나와 임시로 고시원에 머무는 순영을 찾아가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정아 모녀가 나누는 대화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순영 엄마. 나는 이혼한 게 아니라 해방된 거야, 해방
정아 해방이네. 자유네 자유! 니 말이 맞네.

그렇게 딸을 떠나보낸 후 정아는 자신 역시 아내와 엄마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했던 삶을 벗어나 허름한 집을 얻어 독립을 선언한다. 이런 정아를 비난하고 조롱하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남편 석균이 여행 티켓과 수천만 원이 든 통장을 가지고 와 달래지만 정아는 끝내 이제부터 자신의 삶을 살아보겠다며 이를 뿌리친다. 이런 정아의 모습은 가부장제의 굴레 안에서 모성만을 강요받고 살던 여성들이 자식들이 모두 성장한 후 뒤늦게 자이를 찾아가 떠나는 ‘황혼이혼’의 세대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죽어도 길 위에서 죽을 거야”를 외쳐온 칠십대 정아의 자아 찾기가자 남편과 불합리한 가부장제 질서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다.

정아 (이혼하겠다는 정아를 염려하며 기분 전환하러 여행 가자는 일

행에게) 기분 전환이 아니라 인생 전환할 거야.. 엄마처럼 죽어 새 되면 뭐해. 살아 자유로운 새 돼야지. 엄마 가실 때 맘먹은 거야.

기존 드라마에서도 정아처럼 간혹 가부장적인 남편이나 남성에게 대립하는 여성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으나, 한 여성으로서의 자아 찾기가 기보다는 순간적인 감정으로 가출을 하는 등 집안에 갈등만 유발하다가 결국은 자식들의 만류로 다시 가부장제 질서 안에 포섭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여성의 삶을 옥죄는 ‘모성 이데올로기’ 안에 갇혀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여성들은 결국 그에 응당하는 대가를 치르거나 파국을 맞는 방식으로 재현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나, 정아는 끝까지 자신과 딸의 독립을 쟁취하고 해피 엔딩을 맞는다는 점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 드라마를 시청자들에게 설명하고 연결시켜주는 1인칭 화자인 완의 엄마 장난희(63세, 고두심 분) 역시 60대의 나이지만 10년 전 남편과 사별 후 식당을 운영하며 젊고 활기차게 사는 것은 물론, 경제력을 갖추고 늙은 친정부모와 장애를 가진 남동생을 살뜰하게 챙기는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며 주도적으로 살아간다. 드라마 후반부에 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둔 상황에서도 난희는 자신의 부재로 인한 가족들의 앞날을 먼저 걱정한다.

난희 내가 너한테 말하면, 할머니한테 말하면 뭐가 달라져? 평생 내 짐인데...(중략) 수술 날짜 받아놓고 이 지경이 돼서도, 나 없음 너 어떻게 살까?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은... 그 걱정으로 머리가 한 짐이야, 내가!

한때 난희와 절친한 친구였지만 30년 전 난희의 오해로 멀어졌다 최근 미국에서 귀국해 다시 끈끈한 친구가 되는 영원(63세, 박원숙 분)은 전직

배우로서 귀국 후에도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며 ‘액티브 시니어’의 모습을 보여준다. 두 번의 이혼을 겪고 암이 전이돼 투병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그녀는 현장에서 젊은 연기자들의 귀감이 될 정도로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며, 주변의 쭉군뎀에도 굴하지 않고 극중 친구나 선배들에게는 물론 정아의 딸 순영과 난희의 딸 완이에게까지 멘토 역할을 하며 당당하게 살아간다. 이처럼 <디마프>의 노인여성들은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력을 가지고 아직도 공적 영역에서 활약하며, 주변 사람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베푸는 합리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평소 “내가 왜 끈대야? 나 처년테!”를 입에 달고 사는 충남(65세, 윤여정 분)은 가난한 집의 열두 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제 힘으로 야간 중학교를 졸업하고 열세 살부터 방직공장과 버스 안내양을 전전하며 어렵게 돈을 모아 자수성가한 독신녀이다. 말 많고 대차고 솔직한 성격인 그녀는 보기와는 다르게 야외카페를 운영하며 늙은 형제들과 일가친척들의 생계와 부양을 도맡아 책임지고, 형편이 어려운 교수와 예술가들의 작품을 사주며 지원한다. 그러나 이렇게 숙정 깊은 그녀지만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으로, 경제적 이득을 위해 자신과 친한 척 하면서도 은근히 그녀를 무시하는 허위의식으로 가득한 남자 교수들에게 호통을 칠 만큼 사리분별이 분명한 캐릭터이다.

충남 (버럭) 니들 나 많이 무식한 거 알지? 그럼 무식한 사람 수준에서 말을 해야지 정확하게. 누님, 하얀 집으로 오세요... 그렇게! 왜 카사블랑카래, 사람 헛갈리게! 젊은 거, 배운 거 무기 삼아 사람 무시하는 무식한 양아치짓 대체 어디서 배웠니, 니들!”

특히 충남은 어릴 적 가난 때문에 최종학력이 중졸인 것이 안타까워 예순 다섯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서울까지 올라가

손자뻘의 십대 청소년들과 검정고시학원을 다니며 스스로없이 어울리는 등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라 아직도 배움의 열정이 있고 목표가 있는 신노년의 표상으로 재현된다.

<디마프>에 등장하는 노인여성 가운데 최고 연장자인 난희의 친정엄마 쌍분(86세, 김영옥 분)은 50여년 세월을 남편의 폭력과 외도에 시달리다 늘그막에 쓰러져 인지능력이 아이가 된 남편 호진과, 작업현장에서 떨어져 하반신 불구가 된 아들 인봉을 챙기며 80대의 나이에도 발일과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억척스런 시골노인이다. 입만 열면 거친 욕설을 내뱉곤 하지만 남편의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글공부를 시키고 몇 년 동안 아픈 아들의 간병을 하면서도 항상 딸 난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마음아파 한다. 얼핏 보면 쌍분의 캐릭터는 가부장제가 요구하는 전통적인 여성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드라마에서 유사한 연령대의 노인여성들이 단순히 주책맞거나 가족 이기주의에 매몰돼 갈등을 유발하는 인물로 그려진 것과 달리, 딸 난희가 친구인 영원을 적대시할 때도 상처 많은 영원을 친딸처럼 품어주고, 독신인 충남이 위급할 때도 가장 먼저 달려갈 만큼 이들 모두의 어머니 역할을 하며 정신적인 안식처가 되어 주는 등 배려심이 넘치는 ‘어른’의 모습으로 재현된다.

이처럼 <디마프>는 노인여성에 대한 기존의 재현관습을 깨고 ‘타자’로서 드라마의 주변부에 머물렀던 이들을 극의 중심부로 불러왔다. 그리고 ‘돌봄’과 ‘시혜’의 대상으로 이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존감과 자아를 지키려는 모습, 가부장제의 권력에 맞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갈망하고 딸의 문제를 해결하며 지지하는 어머니의 모습, 경제력과 나름대로의 사회적 성취를 이루고 주변을 살피며 멘토 역할을 하는 모습 등 새로운 노인여성의 캐릭터와 이미지를 통해 노인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끌어내며 여성주의적 담론을 생산하고 있다.

3.1.2. 끈끈한 우정과 자매애, 친구세대간의 여성연대

앞서 살펴보았듯이 <디마프>는 새로운 노인여성 캐릭터를 재현함은 물론 기존 드라마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노인여성들 사이의 끈끈한 우정과 혈연관계보다도 더 강한 자매애, 그리고 엄마와 딸, 친구세대 여성간의 공조관계가 서사를 구성하는 중심 이야기축이 된다. 그동안 드라마에서 재현된 여성들간의 관계는 호의적인 관계나 생산적인 우정보다는 갈등이 심한 고부간이나 한 남자를 두고 경쟁하는 연적관계로 설정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어머니나 할머니로 등장하는 노인여성들은 가부장제의 대리인으로서 자신이 여성이면서도 여성을 차별하거나, 자기 자식만 아는 가족이기주의에 젖어 또 다른 여성에게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며 자식들의 인생에 끼어들어 갈등을 유발하는 등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 <디마프>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서로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신뢰로 상대의 상처를 보듬고 그들 사이의 공고한 연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해 나간다. 먼저 그 대표적인 예로 70대 희자와 정아의 남다른 우정을 꼽을 수 있다.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으로 외로움과 무력감에 빠진데다 치매진단까지 받게 된 희자를 절망에서 구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아준 것은 무엇보다 절친한 친구인 정아의 역할이다. 혼자 사는 희자는 한밤중 잠에서 깨면 시간을 가리지 않고 정아에게 전화를 한다. 그때마다 잠에서 깬 정아는 남편 석균의 구박에도 불구하고 졸음을 참아가며 희자의 뉘그러리를 들어주는데, 이것이 희자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잠재워 주는 것이다.

희자 잘 땀 전화 꺼. 내가 귀찮게 하잖아.
정아 니 전화 받을라고 안 끄는 거야.
희자 (맘이 짠해지는 알면서 묻는) 내...전화?

정아 늙은이 하룻밤이 무서운데... 뭘 일 있음 어째.
희자 (맘이 짠해지는)
정아 내가 너랑 안 산다고 해서 서운했어? 근데, 희자야. 나는... 그냥 혼자 있고 싶어. 사망이 시끄러서... 우린 같이 안 살아도... 자주 보고 놀고... 힘들면 또 같이 있고... 그럼 되니까... 굳이 같이 안 살아도...
희자 (맘 알겠는) 같이 안 살아도 너랑 나랑 있지. 언제나 지금처럼.
정아 (줄리면서 웃는) 그럼 있지. 늘 지금처럼...
희자 (따뜻하게) 이제 자.
정아 화 풀렸어?
희자 넌 이중인격자 아냐. 석균 씨한테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응원할게.

희자 또한 정아가 권위적인 남편 석균과의 갈등으로 한밤중 차를 몰고 집을 나섰을 때 기꺼이 옆자리에 동승해 위로를 건네고, 요양원에 있는 정아의 친정엄마를 자신의 친엄마처럼 살뜰히 보살피며 친구이자 친자매와 같은 자매애를 과시한다. 둘이 밤에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낸 정아와 자수를 하러 가는 길에도 희자는 정아의 목에 자신의 머플러를 둘러주며 자기가 했다고 하라고 한다.

희자 (머플러 해주며) 너 해. 그리고 경찰서 가면 내가 했다 그러는 거다. 나는 암것도 걸릴 게 없잖아. 남편도 없고.

치매증세가 있는 희자가 걱정돼 수시로 희자의 집을 드니다며 집안일도 거들고 말벗을 해주던 정아는 어느 날 희자의 아들 민호와 함께 집에 갔다가 자존감 강한 희자가 옷에 소변을 저리고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정아는 아들 민호가 옷을 갈아입히겠다고 하자 희자가 마음 상할 것을 염려해 아들도 남자라며 밖에 나가 밥을 먹고 오라고

내보낸 뒤 자신이 옷을 갈아입히고 거실 바닥에 떨어진 소변을 걸레로 훑친다. 주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간 희자가 한밤중 잠이 안 온다며 전화를 하자 한걸음에 달려간 정아는 희자와 부둥켜안고, 이들은 평소 꿈꾸던 영화 <텔마와 루이스>의 한 장면처럼 밤새 국도를 달리며 이렇게 외친다.

희자 아, 나 조희자야. 내 친구는 문정아야. 우리는 간다~~.

또한 초등학교 동문으로 어려서부터 한동네에 살며 오랜 인연을 맺어 온 <디마프>의 노인여성들은 혈연관계보다도 끈끈한 자매애를 보이며,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모두가 팔을 걷고 나선다. 치매증세가 있는 희자가 실종됐을 때 정아와 난희, 충남, 영원,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생업을 뒤로 하고 희자를 찾아 나서며, 독신인 충남이 한밤중 맹장염으로 병원에 실려 갔을 때도, 난희가 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을 때도, 피붙이처럼 마음 아파하며 제일 먼저 달려와 끝까지 병상을 지키는 것도 이들도이다.

한편 희자의 첫사랑이었던 성재(72세, 주현 분)의 등장으로 잠깐이지만 그를 짝사랑하며 가슴이 설레던 충남은 치매에 걸린 희자에게 그가 위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감정을 접고 두 사람의 관계를 지지하며, 그들이 여행을 떠나기 전날 직접 희자의 여행 가방을 챙겨주고 단장을 해주는 등 애뜻한 자매애를 보여준다. 희자 또한 충남이 성재를 좋아하는다는 사실을 알고 성재에게 전화를 걸어 여행을 그만 두자고 할 만큼 서로가 마음을 써준다.

희자 나 여행 안 가요. 나는 성재씨보다 충남이가 중요해.

또 희자와 정아, 난희와 완이는 요양원에 있는 정아의 친정엄마를 모

시고 바닷가를 찾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은 채로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모두는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황망한 정아대신 장례를 준비하고 새가 되고 싶었던 어머니의 꿈처럼 바다에 분골을 뿌려드린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의연하게 대처하는 이들을 지켜본 극중 화자인 30대 후반 완의 내레이션은 인고의 세월을 살아온 노인여성들의 연륜과 지혜에 대한 찬사에 가까우며 <디마프>가 이들을 보는 시선이기도 하다.

Nar. 경험 없는 내 자신이 조개껍질처럼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고, 온갖 세상일을 겪은 늙은 어른들이 거대하고 대단해 보일 때가 있다.. 어쩔 수 없는 모든 것을 순리라고 받아들일 때 나는, 어른들이 산 처럼 거대하고 위대하고 대단해 보인다.

이와 같은 여성간의 공감과 공조는 어머니와 딸, 친구세대간의 관계에서도 이어진다. 정아는 입양한 큰딸 순영이 남편의 의처증과 잦은 폭력에 못 이겨 집을 나오자 희생과 순종을 강요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딸의 이혼을 지지하고 독립을 지원한다. 남편의 외도와 사고로 장애인이 된 남동생 때문에 늘 연애상대로 유부남과 장애인인 안 된다고 딸에게 말했던 난희 역시 결국 딸 완의 사랑을 지지한다. 슬로베니아 유학시절 동거하던 서연하(32세, 조인성 분)가 교통사고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됐지만 완이 여전히 잊지 못하고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고, 난희는 자신의 암 수술과 간병을 위해 연하에게 가지 않겠다는 완에게 비행기 티켓을 사다 주며 등을 떠민다.

또한 <디마프>는 친구세대 여성사이의 이해와 공감을 통한 여성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극중 화자로 등장하는 30대의 완은 엄마의 친구와 선배들을 모두 이모라고 부르며, 그들이 필요로 할 때마다 투덜거리면서도 결국은 달려가 해결사 역할을 도맡아 한다. 영원과 충남 역시 차마 엄

마에게 장애인이 된 연하와의 관계를 털어놓지 못하고 마음아파 하는 완의 하소연을 들어주며 친구이자 멘토가 되어 결국은 난희가 두 사람의 관계를 허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다. 또 영원은 남편에게 맞고 응급실에 실려 간 순영에게 한달음에 달려가 진단서를 끊고 순영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집을 나온 순영이 오갈 데가 없어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영원과 충남이 선뜻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 이처럼 <디마프>는 노인여성들 간의 우정과 자매애, 엄마와 딸로 이어지는 공감과 연대, 신구세대 여성간의 공조 등을 통해 페미니즘이 지향하는 ‘여성연대’의 가능성을 재현하고 있다.

3.1.3. 탈권위적인 남성 인물들과, 여성중심의 관계

드라마 <디마프>는 여성 인물들 외에도 가부장적 남성 인물들과 달리 여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 여성의 선택을 지지하는 탈권위적인 남성 캐릭터의 설정과 여성중심의 관계를 보여준다. 먼저 희자의 첫사랑인 성재는 변호사 출신으로 아내와 사별한 후 이들 앞에 등장하는데, 세련된 외모와 경제력을 갖춘 것은 물론 70대에도 오픈카를 몰고 다닐 만큼 활기찬 노년을 보낸다. 성재는 희자의 치매증세가 심해지자 친구를 자처하며 희자의 집에 설치된 CCTV를 자신의 아이패드와 연결해 시시각각 희자의 안위를 살피면서도 희자가 부담감을 느끼지 않게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며 도움을 준다. 또한 성재는 희자가 자식들 때문에 자신과의 관계를 불편해 한다는 것을 알고, 희자의 옆에 친구로 남기로 한다.

성재 내가 너랑 살재나 놀재지. 내가 너랑 연애하재나 친구하재지.

남편과 사별하고 치매까지 얻어 우울한 희자를 위해 성재는 젊은 시절 두 사람의 추억이 깃든 시골마을로 여행을 가고 희자가 살아온 날들을

들어주며 위로한다. 다음날 해돋이를 보기 위해 산에 오른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서로의 존재에 감사한다.

희자 나 이런 데 데려와 줘서 고마워요.
성재 나는 지금껏 니가 살아줘서 참 고맙다.

그동안 미디어에서 노년의 사랑은 주책맞은 것으로 폄하되고 희화화되거나, TV드라마보다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화 등에서는 남성 중심의 노인들의 성적인 욕망을 재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디마프>는 오실금이 있는 희자가 여행을 가던 중 차에서 내려 용무를 해결하기 위해 숲속으로 달려가고 성재는 이를 자연스럽게 지켜봐줄 만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의 입장과 선택을 배려하고 지지하는 여성주의적 관계를 보여준다. 영원의 첫사랑이었지만 아내의 병 때문에 영원을 떠났던 대철, 그도 영원을 만나러 30년 만에 한국에 돌아오지만 영원에게 부담이 될까봐 이미 오래전 아내와 이혼한 사실도, 자신이 병마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은 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

완의 남자친구인 서연하 역시 엄마의 사고로 한국으로 돌아갔던 완이 3년째 돌아오지 않지만 완에게 프로포즈를 하러가다 일어난 사고로 인한 자신의 장애가 자기 때문이라고 완이 자책하며 괴로워한다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어떤 내색도 하지 않는다. 가끔은 완이 자신에게 외주지 않는 것이 섭섭하기도 하지만 그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완이와 영상채팅을 하며 친구처럼 관계를 유지하고 완의 선택을 이해한다.

연하 (사고가 났던 성당 보여주며) 종소리 듣고 있어? 여기 오는 게 나도 편하진 않았지만, 용기를 냈지. 우리의 영원한 우정을 꼭 빌고 싶었거든. 완아, 난 영원히 널 사랑해, 친구로서. 외로워하지 마. 너한테 내가 있다.

또한 연하는 불편한 다리에도 불구하고 완의 엄마 난희가 수술을 받는 날, 멀리 슬로베니아에서 날아와 슬픔에 빠진 완을 위로해 준다.

이처럼 <디마프>는 정아의 남편인 석균을 제외하고는 이해와 배려가 넘치는 탈가부장적인 남성 인물들과, 기존 드라마와 달리 남성의 성적 욕망이 배제된 여성중심의 남녀관계는 물론 가부장제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연상연하 커플을 설정함으로써 남성이 주도해 왔던 관계를 전복한다. 완의 연인인 서연하는 다섯 살 연하의 헌신적인 남성이며, 완의 엄마인 난희가 운영하는 식당의 단골손님으로 난희와 좋은 감정을 가지고 교류하는 일우(장현성 분) 역시 연하남이다. 각각 배우자와 사별하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서로 처지가 같아서인지 마음이 통하고 가끔 만나 데이트를 하는데, 난희가 수술을 받기 전날에도 일우는 그녀를 호텔 라운지로 초대해 같이 식사를 하며 용기를 북돋워 준다.

3.2. 통합체 분석: 불균형을 해소하는 여성 연대의 힘

본 연구에서는 드라마를 이끌어 가는 주요 등장인물과 이들의 관계에 대한 계열체 분석에 이어 토도로프의 시퀀스 분석틀을 이용해 극의 전반적인 전개를 알 수 있는 통합체 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기술했듯이 토도로프는 일반적으로 모든 서사물이 균형-불균형-균형으로의 복원이라는 구조를 가진다고 보았으며, 이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힘을 파악하는 것은 그 서사물이 지향하는 핵심가치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먼저 <디마프>의 서사를 이끌어 가는 주요 시퀀스를 분석해 보면, 극의 초반부터 희자는 남편과의 사별과 자신에게 예고 없이 찾아온 치매로 인해 극심한 무력감에 빠진다. 특히 남편의 장례식을 끝낸 자식들이 엄마가 혼자서 어떻게 살겠느냐며 차라리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는 게 낫다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상실감에 괴로워한다. 비교적 평온하게 살아온 마음 어린 희자에게 닥쳐온 이와 같은 불균형상태는 자식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않기 위해 스스로 요양원을 선택하는 희자의 강한 자의식과, 정아와의 애뜻한 우정과 첫사랑 성재의 보살핌 등 정서적 유대를 통해 균형 상태를 회복한다. 또 이 과정에서 희자를 친자매처럼 여기는 난희, 영원, 충남은 물론 30대의 완이까지 다수의 여성들이 희자의 조력자로 끈끈한 유대관계를 보이며 힘을 보탠다.

구두쇠에 전형적인 가부장적 가장인 남편 석균과 살지만 정아는 직장 생활을 하는 세 딸 집을 오가며 가사를 도와주고, 요양원에 홀로 남은 친정엄마를 부양하며 충실하게 살아간다. 남편한테는 불만이 많았지만 평소 세계여행을 하는 희망 하나로 참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온 친정엄마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지고, 여기다 큰딸 순영이 남편의 폭력을 못 견뎌 집을 뛰쳐나오면서 감당하기 힘든 불균형상태에 빠진다. 그러나, 자신의 부모를 잃은 것처럼 장례준비를 해주며 위로해준 희자, 난희, 영원, 충남과의 끈끈한 자매애와, 순영의 이혼과 독립을 위해 앞서서 도와주는 영원과 충남 등의 조력으로 딸이 원하는 새 삶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보내며 균형을 회복한다. 이런 정아는 칠십이 넘은 나이에 가부장제의 상징인 남편 석균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집을 나오는데, 이런 정아를 위해 새로 얻은 집 앞마당에 꽃을 심고 낡은 집을 청소하며 지지해 준 것도 자매처럼 지내는 이들 노인여성들이다. 정아의 삶에서 완전한 균형은 결국 자매와도 같은 이들의 조력과 연대로 이루어진다.

< 표 1 > 균형-불균형-균형의 서사구조

	균형	불균형	균형 회복
희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주부로 평탄한 삶	-남편과의 사별 -치매 증상	-정아와의 진한 우정으로 위기 극복 -난희, 영원, 충남과의 자매애 -첫사랑 성재의 보살핌

정아	세계여행을 꿈꾸며 결혼한 딸들의 살림을 돕는 긍정적 삶	-친정어머니의 죽음 -큰딸의 이혼	-희자와의 우정, 영원, 충남 등의 지지와 도움으로 독립
순영	대학교수와의 결혼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	-엄마 정아와 영원, 충남 등의 경제적, 심리적 조력으로 이혼 후 미국행
완	작가를 꿈꾸며 유학, 연하와의 달콤한 연애	-연하의 교통사고 -엄마 난희의 암 수술	-엄마의 이해와 영원, 충남 등의 지지로 연하와 재결합

<표 1>에서 보듯이 불균형상태에 직면한 이들 노인여성들이 균형을 회복하는 데는 일차적으로 친구이자 선후배 관계인 여성간의 진한 우정과 지지, 연대가 큰 힘으로 작용한다. 또한 <디마프>는 동년배인 노인여성들 간의 연대뿐 아니라 엄마와 딸, 세대가 다른 여성간의 조력과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남편의 폭력에 못 이겨 집을 나온 순영이 자립할 수 있도록 영원과 충남이 경제적 도움을 주며, 엄마인 정아 역시 딸의 독립과 미국행을 적극 지지하고 돕는다. 슬로베니아에 유학을 갔다가 연하남인 서연하와 동거를 하며 알콩달콩 행복했던 30대 작가 완은 자신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 광장을 달려오던 연하가 자신의 눈앞에서 차에 치어 장애인이 되는 아픔을 겪는다. 설상가상으로 엄마 난희가 사고를 당해 그런 연하를 두고 혼자 귀국한 완은 3년째 돌아가지 못하고, 하반신 장애를 가진 남동생 때문에 장애가 있는 남자와의 만남을 극구 반대하는 엄마에게 차마 연하의 이야기를 하지 못한 채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거기다 어느 날 엄마가 간암 진단을 받게 되면서 완의 불균형상태는 지속되고 심화된다. 이런 가운데 절망에 빠진 완을 균형상태로 회복

해준 힘은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엄마 난희의 지지와 평소 이모처럼 완이를 아끼는 영원과 충남의 조력이었다. 난희는 간암 수술을 받은 자신을 간병하겠다고 연하에게 가는 걸 망설이는 완에게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며, 장애가 있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연하를 선택한 딸의 결정을 응원해 주기로 한다.

난희 니가 니 인생 안 살고 나만 보고 있으니깐 내가 딸년 등골 파먹는 진짜 등신 같잖아. 암 걸린 것도 성질나는데, 등신은 그렇잖아. 엄마가 너한테 짐착이 많아서, 아주 가란 소린 못해. 이번엔 일주일만 가. 그러다 엄마 몸이 더 나야지면 그 달엔 한 달, 그러다 결혼해 아주 가고...

결국 완은 슬로베니아와 한국을 오가며 다시 행복을 찾게 되는데,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디마프>의 서사구조는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최근 몇몇 드라마에서 주체적이고 능력 있는 이혼녀나 미혼모 등 가부장제 질서의 균열을 보여주는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이들이 불균형상태에 빠졌을 때 균형을 회복해 주는 힘은 대부분 능력 있는 남성들의 조력으로 결국은 또 다른 남성과의 결합을 통한 낭만적 서사구조를 보인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는 여성은 남성의 도움 없이는 홀로서기가 어려우며, 남성과의 결합이 이상적이라는 가부장제로의 복원을 의미하는 것인데, <디마프>는 이와 달리 혈연관계가 없는 여성들간의 수평적인 자매애와 연대, 모녀간의 연대를 통해 대안적인 여성연대의 실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삶의 고비 고비를 넘어온 노인여성들은 그 이후로 죽어도 길 위에서 죽고 싶다는 정아의 바람처럼 성채와 석균을 포함해 시간이 날 때마다 캠핑카를 끌고 젊은 청춘처럼 길을 나선다. 이 드라마의 엔딩씬은 바닷가에 낚시꾼이 낚시를 할 때 낚시를 낚아 올린 채 나란히 앉아 평온하게 노을을

지켜보는 모습이며, 이를 지켜보던 완의 내레이션은 드라마 <디마프>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핵심 메시지가기도 하다.

Nar)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왜 나는 지금껏 그들이 끝없이 죽음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다고 생각했을까. 그들은, 다만, 자신들이 지난 날 자신들의 삶을 열심히 살아온 것처럼, 어차피 침에 왔던 그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면, 그 길도 초라하지 않게 가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을, 너무도 치열하고 당당하게 살아내고 있는데... 다만 소원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좀 더 오래가길, 아무런 미련이 남지 않게, 조금 더 오래가길...

4. 맺음말: 드라마 <디마프>를 통해본 여성주의적 글쓰기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노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문 채 전적으로 미디어가 재현하는 노인의 이미지와 역할, 담론 안에 갇혀 있다. 미디어는 동시대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와 주장에 다른 태도를 보이며, 특정한 측면을 강조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사회 공동체가 지배적으로 선호하는 가치를 재생산하게 되는데,²⁹⁾ 오히려 텔레비전의 담론이 대중보다 보수적이고, 완고한 장르와 재현관습을 따른다는 지적도 있다.³⁰⁾

실제로 높은 학력과 경제력을 갖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과거와는 다른 젊고 활동적이며 여전히 능력 있는 신노년, 즉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논의들이 일각에서 부상하고 있지만, TV드라마

등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노인은 여전히 노쇠하고 무기력하며, 이치에 맞지 않는 언행으로 희화화되거나 젊은 세대와 번번이 갈등을 유발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다 보니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명 가운데 1명(34.3%)만이 노인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가 ‘긍정적’이라고 답해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20대보다 60대 이상이 더 부정적이라는 응답률이 높아 노인들 스스로 자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³¹⁾

특히 노인남성과 달리 노인여성들은 우리 사회의 견고한 연령주의와 성차별로 인한 이중적 소수자로서, 미디어의 재현에 있어서도 ‘어머니’나 ‘할머니’라는 호칭으로 배제된 채 노인남성보다 더 의존적이고 무기력한 ‘타자’로 묘사되어 왔다. 노인남성들이 가족 내에서나 사회에서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면 노인여성의 역할은 가족관계 안으로만 제한돼 미디어가 여전히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 6, 70대의 노인여성들이 드라마의 중심으로 등장하는 <디어 마이 프렌즈>를 대상으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여성노인의 역할과 이미지에 대한 재현방식과, 이 드라마가 표방하는 핵심가치와 이데올로기를 분석하였다. 여타의 미디어 텍스트보다 드라마는 여성에게 무엇이 옳고 적절한지 사회적 규범들을 재생산하며 대중에게 유포하는 기체로서 페미니스트 미디어 연구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³²⁾

분석 결과 드라마 <디마프>는 노인여성을 단순한 ‘돌봄’과 ‘시혜’의 대상으로 그려 그들의 가치를 폄하하고, 가족과 사회의 부담이라는 부정적인 담론을 양산했던 기존의 재현관습에서 벗어나, 그들을 여전히 자존감과 자아 정체성을 가진 주체로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29) White, M., 김훈순 역, 『텔레비전과 현대비평』, 나남, 1994, 185~230면.

30) 김미라, 『멜로드라마 <밀회>의 코드 파괴(code-breaking)와 그 함의』, 『한국극예술연구』, 제45집, 한국극예술학회, 2014, 336면.

31) 온라인 중앙일보, 2017. 4.26. <http://news.joins.com/article/print/21513969>.

32) 김훈순, 『텔레비전 드라마 속 여성들의 일상: 사랑, 가족, 일』, 『다시 보는 미디어와 젠더』,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3, 191~219면.

모습으로 그려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가족관계에 갇히지 않고 경제 활동을 하며 오히려 주변을 부양하고 보살피는 것은 물론, 살아온 연륜과 지혜로 주변 사람들의 상처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젊은 세대의 여성들에게는 멘토로서 실질적인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재현했다. 무엇보다 드라마 <디마프>는 극의 전개에 있어 노인여성들 간의 끈끈한 우정과 자매애를 통한 연대, 가부장제에 맞서는 엄마와 딸의 공감과 지지, 그리고 친구세대 여성간의 세대를 뛰어넘는 이해와 공조로 그들이 불균형과 난관을 극복하고 균형 상태로 복원하는 시퀀스를 통해 포스트 페미니즘이 주창하는 ‘여성연대’의 필요성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생산하였다.

그동안 미디어에서 일부 ‘신노년담론’이 부상하기도 했으나, 이것은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가치에 기반하여 ‘노화’를 극복해야할 대상으로 상징하고, 생산성을 강조하며 경제적 부와 소비능력을 갖춘 노년만을 바람직한 것으로 재현함으로써 대다수 노인들을 되레 이중적으로 소외시키고 억압해 왔다. 이러한 재현방식과 담론은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광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드라마에서도 기업의 경영인이나 사주로 등장하는 노인여성들의 경우,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여성적 가치를 실천하는 인물로 그려지기보다는 그 지위와 부를 이용해 가부장제 권력의 대리인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성역할과 가부장제 질서의 균열과 전복으로 보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그런 면에서 드라마 <디마프>는 여성주의적 글쓰기에 한발 더 다가갔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노인여성들을 주인공으로, 가부장제 사회에서 일반적인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남편의 외도와 폭력, 모진 시집살이 등 저마다의 상처를 안고도 여성 특유의 생명력과 포용력을 가지고 이를 극복해 내는 여성들의 생애를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불륜과 고부갈등 등 가족 간의 갈등을 주로 다루는 일일 드라마 등에서 노인여성은 사리분별이 없고, 부와 권력

을 가진 경우에도 가부장제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혈연중심의 가족이기주의에 매몰돼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심화시키는 인물로 그려지거나 여성간의 관계 역시 적대적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디마프>의 노인여성들은 외형적, 신체적인 ‘노화’를 반드시 극복해야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며, 노년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치매와 질병, 가족과의 사별, 황혼이혼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그동안의 경험에서 얻은 지혜와 여성들 간의 연대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 <디마프>는 이를 통해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노인여성의 역할이 무엇인지, 인간의 생애에서 노년의 가치가 얼마나 다양하고 소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당사자인 노년세대는 물론 다양한 세대의 공감을 불러왔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성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최근 드라마의 서사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균열과 포섭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마프>의 이러한 시도는 여성주의적 글쓰기의 가능성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를 기점으로 미디어 연구에서도 소외돼 왔던 노인여성에 대한 미디어의 재현과 담론 분석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보다 현실적이고 건전한 ‘노년담론’이 활성화되어 고령사회의 세대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를 미디어가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 1화~16화 VOD 자료

노희경, 『노희경 대본집-디어 마이 프렌즈 1』, 북로그컴퍼니, 2016.

_____, 『노희경 대본집-디어 마이 프렌즈 2』, 북로그컴퍼니, 2016.

<디어 마이 프렌즈> 공식홈페이지:

<http://program.tving.com/tvn/dearmyfriends/13/Contents/Html>

온라인 중앙일보, 2017. 4.26. <http://news.joins.com/article/print/21513969>.

2. 단행본

김훈순, 『텔레비전 드라마 속 여성들의 일상: 사랑, 가족, 일』, 『다시 보는 미디어와 젠더』,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3.

윤현선, 『텔레비전 광고에 재현된 노년 여성의 문화적 표상』, 『지금, 여기, 여성적 삶과 문화』,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3.

홍명신, 『에이징 커뮤니케이션-고령사회를 위한 노인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Chatman, S., 김경수 역, 『영화와 소설의 서사 구조: 이야기와 담화』, 민음사, 1990.

Thone, R., *Women and Aging: Celebrating ourselves*, New York: Harrington Park Press, 1992.

Todorov, T., *The Poetics of prose* (Howard, R., Tran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7.

White, M., 김훈순 역, 『텔레비전과 현대비평』, 나남, 1994.

3. 논문 및 평론

강진숙, 「노인여성의 미디어 재현과 차별에 대한 인식 연구: 20대 대학생들과의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제24권 1호, KBS 방송문화연구소, 2012.

김미라, 「멜로드라마 <밀회>의 코드 파괴(code-breaking)와 그 함의」, 『한국극예술연구』, 제45집, 한국극예술학회, 2014. 336면.

김환희·이소윤·김훈순, 「TV드라마와 젠더담론의 균열과 포섭: 이혼녀와 미혼모의 재현」, 『미디어, 젠더 & 문화』, 제30권 3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5.

박주연·김숙,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노인의 가족 내 역할과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제57권 2호, 한국언론학회, 2013.

변재란, 「여성, 할머니 그리고 나이들의 재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4호, 한국콘텐츠학회, 2012.

양정혜, 「TV광고가 재현하는 고령화 시대의 노인」, 『커뮤니케이션이론』, 제7권 1호, 한국언론학회, 2011.

이경숙, 「<그대를 사랑합니다>의 서사적 재매개와 노년의 재현 관습」, 『드라마연구』, 제38호, 한국드라마학회, 2012.

이동욱,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노인여성의 역할분석과 힘 기르기」, 『젠더연구』, 제14호,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2010.

_____, 「한국의 노인 성담론에 관한 여성주의적 고찰」, 『한국여성학』, 제26권 2호, 한국여성학회, 2010.

정진웅, 「노년의 꿈, 타자화된 노년과 공상적 노년담론을 넘어서」, 『당대비평』, 제22호, 생각의 나무, 2003.

지영서·김영찬, 「노인대상 프로그램 제작진의 인식과 제작 환경에 관한 현장 연구: 공영방송 KBS를 시작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제15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0.

홍지아, 「TV드라마를 통해 재현된 여성의 몸 담론」, 『한국언론정보학회』, 통권 49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10.

Gerbner, G., Signorielli, N., & Morgan, M., "Aging with television: Images on television drama and conceptions of social reality", *Journal of Communication*, Winter, 1990.

M. Vavrus, "Domesticating patriarchy: Hegemonic masculinity and television's 'Mr. Mom'", *Critical Studies in Media Communication*, 19(3), 2002.

Abstract

The Feminism Narrative in the TV drama series
<Dear My Friends>

Kim Mira

Despite the fact that Korea is now an aging society, elderly women still face double discrimination, being in the minority as a woman and as an elderly person. As such, in TV dramas, elderly women remain in supporting roles as the mother or grandmother of a young main character. The media have also continued to portray elderly women as old and weak people who are in need of “care” and “welfare”, or they are introduced in a stereotypical, negative way, such as the obsessed family centric matriarch that cause conflicts or the silly old fool who contradicts herself in her actions and words. This study conducted a narrative analysis from a feminist perspective, of the TV drama series *<Dear My Friends>*, which was praised for using elderly women as main characters, under the premise that the media’s portrayal of elderly women can create distorted social discourse and incur generational conflic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ound that the drama series *<Dear My Friends>* depicted the elderly women, who are elementary school classmates, in ways which are drastically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representation of elderly women, by portraying them not as “elderly”, but wise and experienced “adults” who are independent individuals and living each day to the fullest while taking care and consideration of others around them. In addition, the narrative of female friends, seniors and juniors, mothers and daughters, and multi-generations helping each other through pain and resolving conflicts using their stronger-than-blood “friendships” and “sisterhood”, has

suggested possibilities and direction of “female solidarity” and female-oriented writing.

Key words : elderly women, feminism, narrative analysis, representation convention, TV drama series

접수일: 2017년 4월 29일

심사기간: 2017년 5월 16일~6월 20일

게재결정: 2017년 6월 21일